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 글은 성서에 나오는 말이다.
고린도전서 제13장 4절~13절에 있다. 이미 각국의 노래 말로도 수없이 사용되었다.
그만큼 좋은 글이다. 진리다. 그런데 무섭다. 이대로 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를 인용하는 필자도 무섭다. 쓰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써가고 있다.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잘 모르잖은가. 두려움도 피아도, 진리도 잘 모르는 철부지. 요즘 세상

은 경계가 없어져버린 듯하다. 때문에 합부로 비난하고 저주까지도 뱉어낸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들, 이를 증계하는 매스컴, 세상을 온통 오물통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에는 남녀노소도 따로 없다. 마치 경쟁하듯이 짝어낸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할 청소년들, 조쪽보다도, 망나니보다도 더 지독한 행위들을 하기도 한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괴위대는 흉연은 또 어떤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가래침 뱉어가면서 피고 뱉는다. 낭만이 꽃피어야 할 대학캠퍼스,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직장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차 한 잔도 동료들과 나눠 마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자신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젓가락도 얹지 않

들고.
이런 각박한 모습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만남이 없다. 당연히 대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집단이 이럴 정도니 그들이 속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 밝고 맑아질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 눈뜨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온통 아비규환의 곡소리뿐이지 않겠는가.
참으로 애제다. 통제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줄 수 있는 곳이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기능도 망가져버린 지 오래다. 인간의 마지막 보류라는 종교기관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다른 곳보다는 타류가 덜 흐르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더 대접을 받는 다.
물질적으로는 물론 영혼까지 황폐해져버려 무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편안히 쉴 곳은 이미 아닌 말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광란의 세상, 조금이라도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보면 어떨까. 앞서 말한 성서구절을 좀이라도 곱씹으면서,

社說

한빛원전 재가동 주민 동의 구해야

영광 한빛원전 3·4호기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은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할 것이다.
이와관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최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 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은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현장설계변경, 시공사인 현대건

설의 부실시공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 까지였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2017년 6월 발견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는데 있다할 것이다.
한빛원전 사건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원전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무책임과 안이한 인식이 있는 한 재가동은 요원한 일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중독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브랜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준비운동으로 안전사고예방

가을철에 권장할 만한 운동으로는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살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걷기, 등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 등이 있다. 하지만 심한 일교차 속에서 바로 운동을 하면 위축된 몸에 경련이 오거나 심하면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준비운동은 본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준비운동은 10~20분 정도로 실시하며 근육과 인대 등을 서서히 늘려 신체의 유연성을 높여 주는 스트레칭이 제격이며, 이후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신체의 주요 관절을 충분히 풀어 주면 효과적이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은 반동을 주지 말고 10~15초 정도 멈춰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이후에는 안전한 유산소운동인 걷기가 좋다.
특히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나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 적합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힘을 빼고 크게 흔들며 걷는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며 앞꿈치로 지면을 치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다.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사람이면 달리기도 괜찮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시속

6~7km의 속도로 20분 정도 달리는 것이 좋으며, 2주마다 5분씩 운동시간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산, 자전거타기, 수영 등도 충분한 준비운동이 곁들여지면 가을철 운동으로 적합하다.
준비운동만큼 정리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정리운동을 해줌으로써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 심박수, 혈압 등을 안정된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운동은 가벼운 조깅이나 천천히 걷기, 체조,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류진상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사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